

안정 기조 속에서 회복세를 유지하는 미국 경제

金 旭*

지속되는 경기 회복

금년 1/4분기중 전년 동기 대비 3.4% 성장한 미국 경제는 2/4분기 들어 약간 주춤, 2.6%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성장률 저하는 주로 자동차 판매와 생산에 대한 계절별 조정에 기인하는 통계적 허구로서, 미국 경제 회복의 실질적 둔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기 회복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회복세는 3/4, 4/4분기에도 이어져 금년 전체의 성장률은 3.7%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재정적자 감축과 무역 증대가 경기 회복의 주요인

미국 경제가 이처럼 회복하고 있는 데는 두가지의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그 하나는 재정적자의 감축이다. 1992년 2,691억 달러로 피크에 달했던 재정적자는 1993년 2,249

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며, 금년에도 1,612억 달러로 계속 감소할 전망이다. 미국경제의 가장 큰 골치거리인 재정적자에 대한 클린턴 행정부의 지속적인 감축 노력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경제 회복의 또 한가지 요인은 무역 증대이다. NAFTA의 발효, UR 타결 등으로 무역이 급증한 데다, 일본 등 주요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공격적인 통상정책이 어느 정도 수출 증대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계속적인 엔화절상으로 인하여 일본과의 무역수지 적자는 엔화를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예상대로 내년에 WTO 체제가 출범하고, 또 현재의 전세계적인 경기 회복 추세가 지속된다면, 앞으로의 무역 전망도 매우 밝다.

인플레이 압력과 금리 인상 정책

미국 경제의 회복은 인플레이에 대한 우려를 자아냈으며, 이는 美聯準(FRB)에 의한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美 Iowa 대학교 정치학 박사, 정치 경제학 전공.

연이은 금리 인상을 초래하였다. 1989년 하반기 이후 그동안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오던 미국 금리는 금년 2월 연방기금금리가 3.0%에서 3.25%로 인상한데 이어, 그후에도 4차례나 인상하여 현재 4.75%를 기록하고 있다.

美聯準의 이러한 긴축 기조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제조분야의 혁신을 통한 효율성 증진, 그리고 미국 경제의 세계화 등은 더 이상 '경제회복=인플레'라는 공식을 성립시키지 않는다는 주장과¹⁾ 함께 민간부문과 미의회는 금리 인상 정책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美聯準 위원장 그린스팬(Greenspan)은 작년말부터 과열되었던 경기를 안정시키고 향후 3% 내외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통한 긴축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그의 입장은 며칠 전 발표된 IMF의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의해서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²⁾

여전히 존속하는 미국 경제의 문제점

미국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고는 하나, 미국 경제는 여전히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가장 심각한 구조적 문제점은 무역적자의 지속적인 증가이다. 클린턴 행정

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무역적자는 1992년 이래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금년의 경우도 1,573억 달러로 작년에 비해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경제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없는한 이러한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 미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美日포괄무역협상의 결렬 가능성이다. 9월말 현재 부분 타결은 보았지만, 미국은 최악의 경우 자동차 부문에 대한 수퍼 301조의 발동 등 강력한 對日 보복조치를 취할 지도 모르며,³⁾ 또한 엔화의 추가 절상도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결국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과 미국과 일본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전체의 위축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의 정치적 어려움도 미국 경제에 부담으로 남아 있다. 보스니아 사태, 북한 핵문제, 아이티 침공 등 대외정책에서의 연속적인 실패는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미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떨어뜨렸다. 국내적으로도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며 추진해 왔던 의료보험개혁법안의 실패가 유력시될 뿐 아니라, UR 협정의 의회 비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11월로 다가온 중간선거에서도

1) DeVol and Posner (1994)를 참조.

2) *The Wall Street Journal* (1994. 9. 29).

3) 박완규 (1994).

민주당의 고전이 예상되고 있어, 클린턴 행정부의 향후 경제운영은 상당한 정치적 제약하에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⁴⁾

95년에는 안정 기조속에서 둔화된 성장세 유지 전망

위에서 살펴 본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미국 경제의 지속적인 고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美聯準의 거듭된 금리인상은 이미 자동차 등 주요 내수 분야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소비자신뢰지수도 6월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표 1> 미국 경제 전망

項 目	1993년	1994년	1995년
실질 GDP 성장률 (%)	3.0	3.7	2.5~2.9
실업률 (%)	6.8	6.4	6.2
소비자물가 상승률 (%)	3.0	2.5	2.8
무역 수지 (10억 달러)	-130.6	-157.3	-175.5
재정 수지 (10억 달러)	-224.9	-161.2	-144.8

자료: WEFA, *World Economic Outlook*, 1994. 7. Vols 1, 2.

IMF, *World Economic Outlook*, 1994. 9. (*The Wall Street Journal*, 1994. 9. 29 기사에서 재인용.)

주: 1994년, 1995년은 추정치.

따라서 美聯準의 금융긴축 정책이 지속되고, 미일포괄무역협상이 최악의 사태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1995년의 미국 경제는 안정 기조속에서 금년보다는 둔화된 2.5~2.9% 정도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 문헌

- 박완규, “美, 對日무역제재 水位 고심” 『세계일보』 1994. 9. 28.
 野村總合研究所, 「財界觀測」 1994. 7.
 DeVol, Ross C. and Christopher Posner, “The U.S. Inflation Process: A New Regime?” in WEFA, *World Economic Outlook*, 1994. 7. Vol. 1.
The Economist, 각호.
 IMF, *World Economic Outlook*, 1994. 9. (*The Wall Street Journal*, 1994. 9. 29 기사에서 재인용)
The Wall Street Journal, 1994. 9. 29.
 WEFA, *World Economic Outlook*, 1994. 7. Vols. 1, 2.

4) *The Economist* 각호.